

[재경조찬] 2019.1.21 월요일

FOCUS ON

1. 하이퉁(海通)증권 장차오(姜超) : 중국 경제가 하락세를 타고 있지만 디레버리지, 통화긴축, 세율인하 등 정확한 방향으로 운영되면서 투기업체들이 징계를 받고 우수기업들이 급부상하고 있음. 또한, 많은 우수기업들이 사상 최저가에 매물로 나오면서 對중국 투자의 역사적인 기회가 나타나고 있음.
2. 상하이증권보(上海證券報) : 최근에 갱신된 개인소득세 APP 가 임대인 정보를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조정하면서 임대료 소득세 추징에 대한 임대인들의 걱정이 해소됨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논란 또한 수그러 들고 있음.
3. 화샤시보(華夏時報) : 1월 18일 발표된 증감위 주식발행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에 상하이거래소 출신이 빠지면서 시장에서는 창업판 주식발행심사와 연관성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음. 현재 A 주 시장은 심사제로 운영되고 있고 IPO 결정권은 증감위 주식발행심사위원회가 갖고 있으며 창업판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음. 이는 증감위가 상하이거래소에 권한을 이양할 확률이 높아졌음을 뜻함.
4. 핀뉘뉘(拚多多) : 1월 20일 새벽, 한 범죄조직이 시스템 버그를 이용해 수 천만위안 대의 플랫폼 쿠폰을 절도하여 부정당 이익을 챙기는 사건 발생. 이 버그는 즉시 복구되었고 도난 쿠폰이 사용된 거래에 대한 추적을 통해 최종 손실액이 천만위안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보임.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'200 억위안의 손실이 발생했다'는 루머가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퍼졌다는 점.

1. 거시경제

- 1.1 국무원 총리 리커창(李克強) : 교육·과학·문화·위생·스포츠계 인사 및 군중 대표와 좌담회를 개최하여 정부보고에 대한 의견 및 건의 청취. 1인당 평균 교육기간을 늘리고 직업교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대학교의 다양화 발전을 추진하고 과학연구인력의 창조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발전의 걸림돌이 되

는 기술난관을 타파할 것을 지시.

1.2 칭화(靑華)대학 교수 리다오쿠이(李稻葵) : 2018 년 중국 경제조정을 초래한 주요 원인은 과도한 금융긴축. 2017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 온 금융긴축으로 인해 기초시설 건설 투자가 급감했고 중소기업들은 용자난에 시달리면서 거시경제에도 충격이 가해졌음.

1.3 제일재경(第一財經) : 일부 증권사·투자은행 관계들은 창업판이 등록제로 전환된 후 제도설계상 퇴출 장치가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고 지적. 진입 시장화는 기본 수요에 부합되며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어야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은 프로젝트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. 방대한 시장에서 좋은 목표기업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은 일부 기업의 퇴출을 뜻함.

1.4 상하이황금거래소 이사장 자오진푸(焦瑾璞) : 현단계 중국의 인터넷금융 감독관리는 감독관리기구의 감독과 업계 자율관리를 결합한 혼업 감독관리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반드시 인터넷 금융의 업무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함.

1.5 글로벌 자산 리서치업체 Wealth-X : 2018 년 세계 고액자산가(순자산 100 만 달러 ~3,000 만 달러) 수는 총 2,240 명으로 전년대비 1.9% 증가했고 이들의 자산은 총 61 조 3,000 억 달러로 1.8% 증가했으며 2018 년 글로벌 경제성장율인 3.7%에 뒤처졌다고 발표. 현재 아시아의 고액자산가 수는 유럽과 상당하며 미래 5 년간 아시아의 고액자산가 수가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.

1.6 인민일보 : 4 월 29 일, 2019 년 중국 베이징 세계원예박람회가 베이징 연칭(延慶)에서 개막 예정. 이는 1999 년 쿤밍(昆明) 세계원예박람회, 2010 년 상하이 세계원예박람회 및 2018 년 제 1 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 이어 중국에서 개최되는 또 하나의 최고급, 최대 규모의 국제박람회임.

2. 부동산

2.1 중국증권보(中國證券報) : 핑안(平安)은행, 선전(深圳)에서 2019 년 부동산금융백서 발간. 품질 추구 시대에 진입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구매자시장의 특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고 고회전 모델 유지 난이도 또한 상승할 것이며 대형 부동산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부채율을 낮출 것으로 전망.

3. 증시

3.1 제일재경 : 미국 연방정부의 '셧다운' 사태가 30 일간 지속되면서 최소 20 개 중국 기업의 뉴욕 증시 상장 계획이 지연되고 있음. 미국 증시 상장을 대기 중인 한 중국기업의 관계자는 미국 방면의 소식을 기다리는 중이며 미국은 음력설 연휴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족의 음력설 모임에 참가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해졌다고 전함.

3.2 중국증권망(中國證券網) : 1 월 18 일 두 공모펀드가 청산되면서 2019 년에 들어서서 총 16 개 공모펀드의 청산이 이뤄졌음. 업계 관계자들은 펀드 청산이 투자자와 펀드사에게 나쁜 일은 아니며 공모펀드 시장에 투자자의 수요를 초과한 동질화 상품이 대량으로 존재하기에 펀드 청산이 상시화 될 전망이라고 분석.

4. 업계 관찰

4.1 상하이증권보(上海證券報) : 공업및정보화부가 중국비철금속산업협회, 중국희토류산업협회 및 중국철강산업협회를 방문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했으며 교류 과정에서 일부 산업의 2019 년 업무 추진방향 확정. 철강산업의 경우 과잉생산 해소, 컴팩트 공법을 이용한 제강, 기업 합병·구조조정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희토류 산업의 경우 질서 규율 및 신재료 홍보·응용 강화 등 방면에 집중할 것.

4.2 중국증권보(中國證券報) : 중국충전연맹 이사장 동양(董楊), 2019 년 충전시설 산업이 최대 호황 맞을 것. 각 중앙부서는 의견을 모아 각 지방정부에 차량을 늘리는 대신 충전시설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관한 상세한 실시방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.

4.3 신화통신 : 상하이 10 대 AI(인공지능) 응용환경 구축 프로젝트 중 하나인 'AI+교통환경 프로젝트'가 상하이 자딩(嘉定)에 위치한 상하이국제자동차시티에서 시작되었으며 상하이자동차박람회공원을 기반으로 반 개방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시화 운영 시범구를 구축할 계획.

4.4 광밍(光明)닷컴 : 광저우-선전 도시간 철도 운영사는 1 월 21 일부터 승차권을 사전구매할 필요 없이 알리페이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바코드 스캔 후 승차가 가능하며 신분증 없이도 이 방식으로 승차가 가능하다고 발표. 즉 휴대폰만 있으면 열차도 공중버스·지하철과처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음력설 여객수송 효율이 대폭 개선될 전망.

4.5 신화통신 : 생산-개발 일체화 혁신단지인 중국(항저우)5G 혁신단지 정식 오픈. 중

국(항저우)5G 혁신단지에는 중국 최초의 5G 커버리지 100%, 완전한 5G 산업연구 조건을 갖춘 혁신단지임. 오픈식에서 중국(항저우)5G 혁신단지는 차이나 모바일 그룹 저장(浙江)지사를 비롯한 11 개 기구·기업과 10 개의 5G 산업 프로젝트 계약서 체결.

4.6 공안부 : <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 치안관리방법(의견수렴안)> 공개. 의견수렴안은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의 생산, 경영, 저장, 사용, 운송 및 처리에 관한 치안관리 규정을 담았으며 감독검사인력의 책임과 의무도 명확히 하였음.

4.7 가오더(高德)맵 : 중국관광협회와 연합으로 <2019 년 음력설 관광 예측 보고서> 발표. 정월 초나흘부터 초엿새까지의 기간에 관광객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**항저후(杭州) 시후(西湖) 관광지, 평황(鳳凰)고성 및 평야오(平遙)고성이 3 대 여행 목적지로 꼽혔음.**

4.8 신화통신 : 스위스와 영국의 연구진이 유연한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미국 <사이언스 어드밴시스>지에 발표. '미생물 생체'와 흡사한 **이 로봇은 점도가 있고 급속도로 흐르는 액체 속에서도 '수영'이 가능하며 미래에 약물을 병소조직까지 투입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.**

5. 산업 데이터

5.1 MySteel : 지난주 **중국 현물 철강재 가격종합지수는 전주 대비 0.37% 하락한 139.84 로 마감.**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, 음력설을 앞두고 일부 지역의 단말 공사가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면서 철강재 시장의 거래규모가 줄어들었고 새로운 물량이 시장에 투입되면서 각 지의 철강재 시장 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. 음력설이 다가올수록 철강재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수그러들 전망.

5.2 증상중국(券商中國) :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, **보험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수익율 4.025%의 연금상품을 주력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**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수익율의 연금상품을 만나기 힘들. 보험기업의 수익율 4.025% 연금상품 출시 여부는 보험료 목표, 가치 목표, 회사 발전단계와 발전전략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.

5.3 중국증권망(中國證券網) : **2019 년 상반기 필립스 66 니들 코크스 수입가격에 대한 인상이 이뤄졌으며** 그중에서 흑연전극용 니들 코크스 가격 인상폭은 23.53%, 음

극재용 니들 코크스 가격 인상폭은 16.67%에 달함. 관련 기구들의 분석에 따르면, 니들 코크스는 흑연전극 제조원가의 70% 이상을 차지하며 초고출력 흑연전극의 경우 100% 니들 코크스로 제조됨.

5.4 신화통신 : 2019년 음력설 연휴 기간 **하이커우(海口)와 산야(三亚) 공항의 여객 수송량이 연인원 630 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.**

5.5 국가임업초원국 : 충칭(重慶)시 인민정부와 국가개발은행이 체결한 <창장(長江) 보호 사업 지원 및 충칭(重慶) 국가비축임(林) 사업 추진 등 임업 중점분야 전략적제휴협약서>에 따르면, **190 억위안(그중 용자규모 150 억위안)을 투자하여 충칭(重慶)시에서 면적 500 만묘의 국가비축임(林) 기지를 건설**함으로써 창장(長江) 상류 생태장벽을 조성하고 장창(長江) 경제권 생태건설 사업과 창장(長江) 상류 생태보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.

5.6 인민망(人民網) : 1 월 19 일 사오싱(紹興)시 정부가 상하이에서 창장(長江)삼각지대 일체화·사오싱(紹興)(상하이) 협력 설명회 개최. **사오싱(紹興)시 정부는 설명회 현장에서 상하이시의 여러 기구와 협력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투자총액은 351.8 억 위안에 도달.** 산업 프로젝트는 주로 직접회로, 지능형 장비, 생물의학, 신재료 등 신흥산업에 집중.

5.7 자싱일보(嘉興日報) : 자싱(嘉興)시 난후(南湖)구 정부와 상하이강평(康峰)투자관리 유한회사가 **총 투자 110 억위안, 연간 생산량 480 만장의 300mm 대형 실리콘 웨이퍼 프로젝트 계약서 체결하였음.** 2 월 하순에 착공해서 2021 년 2 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연간 생산액이 34 억위안에 도달 예정.

6. 기업 뉴스

6.1 징둥(京東)물류 CEO 왕전후이(王振輝) : 사내 물류조직에서 물류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성공. 2018 년 징둥(京東)물류는 20 만개 이상의 고객사를 위해 물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**외부 업무 수입은 전년대비 100% 넘게 성장.**

7. 자본 동향

7.1 지난주 금요일, 위안화 역외거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환율은 0.0605% 상승한 6.7706 에 거래를 마감했고, 주간으로는 0.3319% 하락. 위안화 중간가격은 0.1080% 하락한 6.7665 를 기록했고, 주간으로는

0.3593% 상승.

7.2 **신삼판(新三板)** : 지난주(1.14 ~ 1.18), **신규 상장기업 수 8 개, 지난주에는 4 개 증가**. 거래액은 지난주 대비 11.56% 감소한 12.87 억위안 기록. 현재를 기준으로 신삼판 상장기업 수는 10,622 개.

7.3 **상하이지분위탁거래센터** : 등록기업 수는 9,824 개로 N 판(창업판) 223 개, E 판 450 개, Q 판 9,151 개 포함. 등록기업 수는 지난주 대비 2 개 증가.

8. 국제뉴스

8.1 **지난주 금요일,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.38% 오른 24706.35 로 거래를 마쳤고, 주간으로는 2.96% 상승. S&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.32% 오른 2670.71 로 장을 끝냈고, 주간으로는 2.85% 상승.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.03% 오른 7175.23 으로 장을 마감했고, 주간으로는 2.66% 상승.**

8.2 **지난주 금요일,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 월물 금값은 전일대비 온스당 0.8% 하락한 1282.60 달러로 장을 마감했고, 주간으로는 0.5% 상승.**

8.3 **지난주 금요일,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 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는 전일대비 배럴당 3.32% 상승한 53.80 달러로 장을 마감했고, 주간으로는 4.3% 상승. 3 월물 북해산브렌트유는 전일대비 배럴당 2.48% 상승한 62.70 달러로 장을 마감했고, 주간으로는 3.7% 상승.**